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남자라는 등의 이유로 관심영역 밖으로 밀어두었던 가정생활에 아버지들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변화, 육아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확산 등과 함께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신세대 아버지들'의 달라진 모습을 7차례에 걸쳐 조명해 본다. <편집자>

“아들딸 교육 아내뭇만 아니죠”

유치원등 각종행사 적극참여 '신세대' 부쩍늘어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다 ①

“아빠, 우리 여기 앉자.” “아빠, 우리 뭐하고 놀까?” “아빠, 아빠, 우리 이거 하고 놀자. 응?”

지난주 토요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꿈내리유치원은 원생들의 고사리같은 손에 이끌려 놀이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젊은 아버지들로 북적였다.

이 날은 꿈내리유치원이 처음 마련한 '아버지 참관의 날'. 퇴근 뒤 유치원에 들른 1백여명의 아버지들은 빨강방, 노랑방 등의 예쁜 이름이 붙은 7개 놀이방을 돌아다니며 '아기공룡 둘리' 음악에 맞춰 아이들과 함께 춤도 추

고, 글자짜맞추기, 꼬마전구에 불켜보기 등의 놀이도 하는 등 2시간여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둘째아들을 따라왔다는 이경수(37·대림동)씨는 “솔직히 집에서 잘 안하던 놀이를 하려니 어색하기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지, 어떤 놀이를 아이가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면서 “아버지들이 아이들 교육에 관심은 많지만 실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만큼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교육 문제로 유치원, 국민학교, 탁아소 등을 찾는 일은 주로 어머니 몫이었다. 하지만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는 젊은 아버지들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유치원 등을 찾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는 특히 유치원에서 뚜렷하다. 유치원마다 '아버지 참관의 날' 등 아버지 참여프로그램이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았고, 운동회·글짓기 등 각종 유치원 행사에서도 아버지들은 중요한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경기도 군포시 예림유치원이 최근 마련한 운동회와 가족 글짓기대회에도 아버지들이 거의 전원 참석했다.

가족글짓기대회 행사에서 '소방관이 되고 싶은 아이'로 장려상을 받은 아버지 안수남(36·군



유치원 '아버지 참관의 날' 행사에서 자녀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돌리춤을 추고 있는 젊은 아버지들. 이들은 자녀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신세대 아버지들의 새로운 경향을 잘 보여준다. <김선규 기자>

포시 당동)씨는 “글을 써보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키워주고 복돋워줘야 할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면서 “회사 근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든 점이 늘 아쉬워 토요일이나 일요일 유치원 행사 때면 빠짐없이 참석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만 해도 유치원 입학철이면 유치원을 둘러보고 입학원서를 내는 등의 일은 주로 어머니들이 맡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아버지들이 함께 오거나 아버지 혼자 미리 와서 점검해 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유치원 교사들의 설명이다.

각 국민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아버지들도 부쩍 늘었다.

서울 위례, 둔촌국민학교뿐 아니라 인천 동명국민학교, 부산 남산국민학교, 달북국민학교 등

이 '아버지교실' '부자캠프' 등의 프로그램으로 아버지들의 교육참여열을 높인 대표적인 학교들이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교육문제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지만 실제 아버지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버지 교실' 등 강좌늘어

부산 달북국민학교는 오는 14일째 학생들의 수업내용을 비디오테이프 찍어 보여주면서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아버지들의 제안을 듣고 어린이 성교육에 대해서 강의도 하는 제2회 아버지교실을 계획하고 있는 등 국민학교마다 아버지교실 강좌를 크게 늘려가는 추세이다.

이밖에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탁아

소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찾아오는 일은 주로 아버지 차지가 된 지 오래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애기방의 정은진 교사는 “5년 전 처음 탁아소 문을 열 때만 해도 탁아소에 들르는 것조차 쑥스러워했지만 요즘은 저녁에 찾아가면서 아이들이 하루종일 잘 놀았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묻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한다. 자녀교육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만을 탓하던 가부장의식에 젖은 아버지들의 모습은 사라진 셈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이런 현상은 아직 일상 가정생활에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일회적인 행사참여에 그치는 경향이 많지만 가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아버지들의 달라진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김미경 기자>